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70페이지 6번 문장 세 번째 화살표 마지막 줄 (3쇄부터 반영)	'수축 속도도 빠르겠구나.'와 같은~	'수축 속도도 빠르겠구나.'와 같은~
1권 73페이지 6번째 화살표 마지막 문장 (3쇄부터 반영)	~면에서 닮았다는~	~면에서 닮았다는~
1권 152페이지 4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4쇄부터 반영)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2권 38페이지 마지막 두 문단 (2쇄부터 반영)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4페이지 3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6문단 1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사실성은 없다며.</td> </tr> <tr> <td>해설</td> <td>애초에 사실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곰브리치와 굿맨'이 사실성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td> </tr> </table>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성은 없다며.	해설	애초에 사실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곰브리치와 굿맨'이 사실성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6문단 1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사실성이랑 유파랑 무슨 상관이야.</td> </tr> <tr> <td>해설</td> <td>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이라는 건 없고, '사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체계·배경 지식과 같은 재현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유파에서 어떤 재현 체계를 사용하는지가 아닌, 유파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재현 체계 자체가 '사실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곰브리치와 굿맨의 주장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하지는 않겠죠.</td> </tr> </table>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성이랑 유파랑 무슨 상관이야.	해설	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이라는 건 없고, '사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체계·배경 지식과 같은 재현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유파에서 어떤 재현 체계를 사용하는지가 아닌, 유파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재현 체계 자체가 '사실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곰브리치와 굿맨의 주장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하지는 않겠죠.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성은 없다며.													
해설	애초에 사실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곰브리치와 굿맨'이 사실성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성이랑 유파랑 무슨 상관이야.													
해설	곰브리치와 굿맨은 객관적인 '사실성'이라는 건 없고, '사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 체계·배경 지식과 같은 재현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유파에서 어떤 재현 체계를 사용하는지가 아닌, 유파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재현 체계 자체가 '사실성'을 결정한다는 것이 곰브리치와 굿맨의 주장이기에 이와 같은 비판을 하지는 않겠죠.													
1권 17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2쇄부터 반영)	①사회 이론은~	②사회 이론은~												
1권 49페이지 23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문단 (3쇄부터 반영)	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DNA가 아닌 'RNA'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정 숙주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특정' 세포에만 존재할 뿐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은 ㉡과 달리'라는 말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1권 63페이지 2문단 ①~③ 문장 해설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소모량(=발산량)'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생성량'은 '발산량'과 같기 때문에,												
1권 73페이지 4문단 (1) ① 문장 해설 2문단 (3쇄부터 반영)	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과거의 나'로, '미토콘드리아'가 '현재의 나'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사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생미토콘드리아'가 '나'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의 후손'으로 재진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인데 '하나의 개체'에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1권 75페이지 6문단 (2) 문장 해설 (2쇄부터 반영)	③ #카테고리 나누기	③~⑥ #카테고리 나누기												
1권 85페이지 하이라이트 문장 (3쇄부터 반영)	③복잡한 문제를~	①복잡한 문제를~												
1권 94페이지 44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2문단 네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내용이 선지에 없는~	내용이 지문에 없는~												
1권 106페이지 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1문단 (3쇄부터 반영)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였죠. 물론 모두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결사 조직의 성행'과 '경쟁의 심화'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민간 영역'의 문제점이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관료 영역'의 문제점이니까요.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른 카테고리의 정보였죠. 물론 모두 '인구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민간 영역'의 문제점이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관료 영역'의 문제점으로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둘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1권 111페이지 3문단 ④~⑤ 문장 해설 첫 줄 (3쇄부터 반영)	'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청액'보다 커지니까~	'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보다 커지니까~												
1권 121페이지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	머릿속엔 '수입-제반 비용=이윤'이라는~												

1권 133페이지 19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5문단 3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이건 적합도 높이는 건데?</td> </tr> <tr> <td>해설</td> <td>검색어들이 웹 페이지에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단어의 빈도'를 높여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걸로는 '중요도'를 높일 수 없죠.</td> </tr> </table>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적합도 높이는 건데?	해설	검색어들이 웹 페이지에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단어의 빈도'를 높여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걸로는 '중요도'를 높일 수 없죠.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5문단 3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이건 중요도랑 아무 상관 없는데?</td> </tr> <tr> <td>해설</td> <td>'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더 많이 링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나열하기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링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td> </tr> </table>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중요도랑 아무 상관 없는데?	해설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더 많이 링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나열하기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링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적합도 높이는 건데?																									
해설	검색어들이 웹 페이지에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단어의 빈도'를 높여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걸로는 '중요도'를 높일 수 없죠.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중요도랑 아무 상관 없는데?																									
해설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웹페이지들이 더 많이 링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나열하기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링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권 138페이지 22번 문제 3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합성은 마지막은 하는 것이지.	합성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1권 155페이지 3문단 3번 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나아가 1문단의 '전통적인 교과서적 견해'는~	나아가 1문단의 '오늘날 교과서적 견해'는~																								
1권 158페이지 32번 문제 정답률 표 (3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13%</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선택률(예상)</td> <td>13%</td> <td>18%</td> <td>21%</td> <td>32%</td> <td>16%</td> </tr> </table>	13%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3%	18%	21%	32%	16%	<table border="1"> <tr> <td>선지</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선택률(예상)</td> <td>13%</td> <td>18%</td> <td>21%</td> <td>32%</td> <td>16%</td> </tr> </table>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3%	18%	21%	32%	16%
13%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3%	18%	21%	32%	16%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예상)	13%	18%	21%	32%	16%																					
1권 269페이지 16번 문제 ㉔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의식과 수적 역할'이 되겠네요.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되겠네요.																								
1권 271페이지 18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1문단 (3쇄부터 반영)	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좋은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은 (나)의 글쓴이를 완전 무시하는 선지죠? (나)의 글쓴이는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록 '외부 세계', 즉 '대상'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을 뿐, '내 몸의 체험'인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좋은데,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은 ㉔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㉔을 주장한 '로랜즈'는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록 (나)의 글쓴이의 주장과 달리 '주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지만요.																								
2권 107페이지 왼쪽 단 1문단 세 번째 줄 (2쇄부터 반영)	상대적으로 '유체'의 밀도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 '유체'의 밀도가 그렇게까지~																								
2권 195페이지 32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법률의 근거 없이 위임명령을 제정하면 삼권 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이지.	행정규칙은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 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더 넓겠지.																								
2권 309페이지 왼쪽 단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4쇄부터 반영)	새로 발행할 채권의 액면 이자율도 높을~	새로 발행할 채권의 액면 이자율도 낮을~																								
2권 321페이지 5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3문단 3번~4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가능하긴 했지.</td> </tr> <tr> <td>해설</td> <td>기본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이런 초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로 토론회 역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td> </tr> </table>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능하긴 했지.	해설	기본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이런 초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로 토론회 역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table border="1"> <tr> <td>명시적 근거</td> <td>3문단 3번 문장</td> </tr>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가능하긴 했지.</td> </tr> <tr> <td>해설</td> <td>'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3문단으로 돌아가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 없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납득하며 읽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td> </tr> </table>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능하긴 했지.	해설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3문단으로 돌아가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 없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납득하며 읽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능하긴 했지.																									
해설	기본적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한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이런 초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로 토론회 역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능하긴 했지.																									
해설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3문단으로 돌아가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 없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초청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문단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납득하며 읽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58페이지 Day 2 [37] 2015.09A 빠른 정답 (2쇄부터 반영)	①	②

For 2025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8페이지 (가) 지문 ‘실전적 지문 독해’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1권 6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이 드러나고 있죠?	나아가, < > 표시한 부분에서는 독자를 언급하며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1권 151페이지 30번 문제 5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한 게 아니었지.	인과 관계는 핵심이 아니지.								
1권 160페이지 37번 문제 3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건 이야기 속에~	상처가 노래에 덧나는 건 말 속에~								
1권 180페이지 46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4쇄부터 반영)	‘먼동’이 튄다는 것은 새벽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먼동’이 튄다는 것은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1권 252페이지 Day 2 [37] 2015.09A 빠른 정답 (2쇄부터 반영)	①	②								
2권 11페이지 88번 문제 1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A]에 대조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둘 다 대조가 있는데?								
2권 26페이지 9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문단~3문단 (2쇄부터 반영)	<p>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lt;제3수&gt;의 정서적 반응’이 &lt;제6수&gt;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lt;제3수&gt;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또한 &lt;제6수&gt;에서 제시된 ‘감각적 표현’은 ‘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하호노라’가 ‘강산’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좋아함’을 구체화하면 ‘강산’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깐요. 이번에도 선지에서 묻는 것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선지였네요.</p> <p>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해결한다면 이 풀이가 더 적절할 거예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올해 수능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내용 중 하나일 거예요.</p>	<p>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lt;제3수&gt;의 정서적 반응’이 &lt;제6수&gt;에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lt;제3수&gt;의 정서적 반응은 ‘뫼’와 관련된 것이에요. ‘뫼’를 바라보니 정말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lt;제6수&gt;에서 화자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님군’에 대한 감사이지, ‘강산’이라는 감각적 표현에 대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lt;제6수&gt;에 강산이 좋다는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그저 ‘님군 은혜’에 대한 예찬을 위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lt;제3수&gt;의 정서적 반응이 &lt;제6수&gt;에서 ‘강산’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lt;제6수&gt;에서 화자가 ‘강산’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적 반응은 ‘감사함’이라는, ‘즐거움’의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예 다른 방향의 정서적 반응이니까요.</p> <p>물론, ‘강산’ 자체는 실제 강과 산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감각적 표현’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lt;제3수&gt;와 &lt;제6수&gt; 속 화자의 내면세계, 즉 정서적 반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죠? 늘 같은 것만 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p>								
2권 65페이지 117번 문제 3번 선지 (4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도치가 어딤어.</td> </tr> <tr> <td>해설</td> <td>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 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치가 어딤어.	해설	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 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A]에 도치가 어딤어.</td> </tr> <tr> <td>해설</td> <td>[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 도치가 어딤어.	해설	[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도치가 어딤어.									
해설	어순의 도치는 둘 다 딱히 없네요. 한국어의 대표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인데, 도치란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 처럼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에 도치가 어딤어.									
해설	[A]에서는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일단 틀린 선지네요. 한편 [B]에서는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등의 부분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는 있죠?									

2권 100페이지 13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2권 215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지문 박스 첫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석파가 그중 회노기 가득하면단을~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2권 334페이지 31번 문제 2번 선지 지문 출처 (3쇄부터 반영)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2권 334페이지 31번 문제 2번 '해설' (3쇄부터 반영)	<p>㉡은 '분명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술자 자신의 시선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갑순이 할머니'의 내면세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갑순이 할머니'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는 것이 겹쳐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죠? '갑순이 할머니'는 '정이'가 '갑득이 어미'와 싸웠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시선으로 초점화' 같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인물의 심리에 공감했는지를 묻고 있네요.</p> <p>물론, &lt;보기&gt;에 따르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은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자는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갑순이 할머니'와 거리를 두면서 이걸 '갑순이 할머니'의 생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p>	<p>근처 맥락을 고려하면,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갑득이 어미'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 서술자가 설명하는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 즉 내면세계에 대한 내용이니깐요. 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죠? '을득이'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집주름 영감'과 늙은 마누라인 '갑순이 할머니'는 ㉡에 나타난 '갑득이 어미'의 깨달음과 일맥상통하는 대화를 했으니깐요. 정확히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로 상대에게 대응했다가, 상황을 잘못 인지했음을 깨닫고 새롭게 추측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시선으로 초점화'와 같은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결국 여러 인물들의 심리에 공감했는지를 묻고 있네요.</p> <p>물론, &lt;보기&gt;에 따르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고 했으니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p>
2권 340페이지 34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문단부터 (3쇄부터 반영)	<p>한편, (나)의 화자가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은 '야인 생애'에 잘 녹아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겸손한 태도로 양보한다는 의미의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애초에 이 지문의 주제가 강호에서의 '자족감'이었기 때문에, '겸양의 태도'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해요.</p>	<p>한편, (나)의 화자는 '청산'이라는 공간에서 벼를 갈고 섶을 치고, 서림 풍우에 소를 먹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고 있어요. &lt;보기&gt;에 따르면, 이 작품은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개성적 공간에서의 금지'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선지에서 말하는 '자랑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표현인 '자족감'과 '자랑스러움'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깐요.</p> <p>나아가, &lt;보기&gt;에서 제시한 세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는 &lt;제6수&gt;, 세 번째는 &lt;제1수&gt;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제시된 이 작품의 특징인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가 &lt;제9수&gt;와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lt;제9수&gt;를 다시 독해하면, 출사하지 못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화자의 처지를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향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 뒤 화자 자신의 '야인 생애'도 언젠간 자랑할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lt;보기&gt;와 엮어서 공감해보면, 출사하지 못해 향촌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야인 생애)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언젠간 벼슬에 나가 지금의 생활을 자랑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야인 생애'로 표현한 화자의 내면세계는 '아쉬움' 정도이지 '자랑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아쉬움'이 &lt;보기&gt;에서 말하는 '회포'(=마음속에 품은 생각</p>

		<p>이나 정)에 해당하는 것이죠.</p> <p>나아가 '겸양의 태도' 역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겸양의 태도'는 쉽게 말해 겸손하다는 것인데, 화자는 정말로 '청산'이라는 공간에 틀어박혀 '야인생애'를 보내고 있을 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겸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겸양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역시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p>
--	--	--